

TFT-LCD, LG필립스LCD “주목”

현대증권, 안정적 지위에 이익증가율 뚜렷 ... 해룡실리콘 · 한솔LCD도

현대증권은 8월22일 TFT-LCD 경기 상승 사이클이 2007년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력한 이익 모멘텀을 보유한 해룡실리콘과 한솔LCD 등 이익증가율이 높은 국내기업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.

김동원 애널리스트는 “모니터, 노트북, TV 등 패널가격 강세가 향후 수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TFT-LCD 생산기업의 수익개선도 4/4분기를 기점으로 뚜렷하게 진행되고, 2007년 말까지 계속될 것”이라며 TFT-LCD 산업에 대해 비중확대(Overweight) 의견과 긍정적 관점의 종목대응을 권고했다.

현대증권은 관심 종목으로 △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독보적인 시장지위를 유지하고 △전년대비 향후 실적 개선 폭이 크며 △시장대비 할인 거래돼 밸류에이션 매력이 뚜렷하고 △안정적인 잉여현금 창출 능력을 보유한 해룡실리콘과 한솔LCD, LG필립스LCD를 추천했다.

특히, 해룡실리콘과 한솔LCD는 2006년 수정 주당순이익(EPS)이 2005년에 비해 각각 158.4%, 121.8% 증가할 것으로 추정돼 중장기적으로 이익개선이 예상되고, 또 3/4분기 영업이익도 전년동기대비 712.7%, 414.8%의 증가세가 전망돼 단기적으로도 이익 모멘텀이 강력하기 때문에 TFT-LCD 시장에서 이익개선 폭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. (서울=연합뉴스 박세연 기자) <저작권(©)연합뉴스-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08/22>